

트럼프 탄핵 '신속 부결' 공언하는 공화 상원

이번주 하원 탄핵표결 앞두고 민주당 하원의원들 강력 반발 상원 재판 시작도 전에 기싸움 여론조사 지지 10월 수준 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공화당 쪽에서 자료 제출요구나 증인 소환 없는 '신속한 부결'을 공개거론하면서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로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 10월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마녀사냥이라며 재차 반발했다. 논란을 키운 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으로 꼽히는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다. 그는 이날 CBS방송 시사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분명히 마음을 정했다"면서 "(탄핵추진) 모든 것은 쓸모없다. 민주당은 탄핵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날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마음을 정했다"는 꽤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나는 공정한 배심원인 척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상원의 탄핵재판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증언을 들을 필요 없이 가능한 한 빨리 종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의 언급은 탄핵문제에 있어 백악관과 완전히 협력하겠다는 공화당 미치 매키넬 상원 원내대표의 지난 12일 발언과 맞물려 파장을 낳았다. 탄핵재판

을 시작할 때 상원의원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선서하도록 돼 있는데 시작도 전에 공화당 지도부에서 연달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무죄선언을 염두에 둔 발언이 공개적으로 이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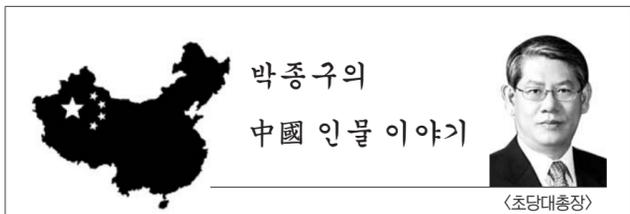
하원의 탄핵추진을 주도한 민주당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도 이날 ABC방송 시사프로그램 '디스위크'에 출연, "그들(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인들이 사실을 보게 되길 원치 않는 것"이라며 "상원의원들이(하원에서 받지 못한) 자료를 제출받고 다른 증인들을 부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제리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도 같은 방송에 출연,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전 보좌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증언을 거부한 이들에게 상원이 증언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인) 한터 바이든이나 내부고발자를 증인으로 원하면 상원이 그렇게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맞불을 냈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 13일 권력남용과 의회방해를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넘겼으며 이번 주 전체표결 및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벌써 상원의 탄핵재판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치가 본격화한 셈이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나 50%가 찬성하는 수준이어서 큰 변화는 없었다. 폭스뉴스가 8~11일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0%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및 대통령직 박탈에 찬성했다. 41%는 탄핵에 반대했다. /연합뉴스



박종우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11〉 한기

한기(韓琦, 1008-1075)의 자는 치규(稚圭)이며 하남성 안양 출신이다. 북송 인종, 영종, 신종 때의 명재상이다.

전주부 지주를 지낸 한국화와 비녀(婦女) 연리 사이에서 태어났다. 3살 때 부모를 여의어 형의 보살핌을 받았다. 1027년 진사에 2등으로 급제해 장작감수, 통판지주를 역임하였다. 1034년 개부부주관 1036년 우사간에 임명되었다. 간관으로 3년간 재직하면서 70여 개의 소(疏)를 올렸다. 1038년 상주환 상소에서 유민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중신 왕수, 진요좌, 한익, 석중립을 80년의 태평성대를 무너뜨리는 무능한 신하라고 비판하였다. 1039년 사천에 가뭄이 심해 많은 백성들이 굶어죽자 안무사로 임명되었다.

다. 그러나 보수 세력의 반발에 밀려 1년여 만에 실패로 끝났다.

1058년 재상에 올랐다. 취임 후 인종의 후사 문제가 최대 현안이었다. 한기는 "황태자는 천하의 안위가 걸려 있는 일입니다"며 황제를 설득해 사촌형 안의왕 조영의 아들 조서를 황태자로 옹립하니 영종이다. 영종은 재위 3년 만에 중병에 걸렸는데 후사 문제가 정해지지 않았다. 결국 조옥을 황태자로 정했다. 1066년 영종 사후 즉위해 신종이 되었다. 1069년 참지정사 왕안석의 신법을 단행했다. 농민에게 저리로 융자해주는 청묘법을 발표하니 반대 상소를 올렸다. 1075년 상주에서 68세로 세상을 떠났다. 신종은 3일간 조회를 중단하고 은삼천냥 비단 삼천 필을 하사했다. 상서령에 추증되고 충헌(忠獻)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북송 신종 상서령 추증 받은 명재상

세금을 감면하고 탐욕하고 포악한 관리를 숙청하였으며 불요불급한 노역을 폐지하였다. 식량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죽(粥) 보급소를 곳곳에 설치해 190만여 명의 백성을 구제했다고 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서하(西夏)의 이원호가 섬서성 변경을 공격해 안보 불안이 가중되었다. 1041년 이원호가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영하 고원의 회원성을 공격했다. 한기는 대장 임복에게 1만8천명을 주어 적의 배후를 우회해 공격하되 험한 지역에 매복해 퇴로를 차단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작은 승리에 우쭐해 명령을 무시하고 영하 육덕 서쪽의 호수천(好水川)까지 추격했다가 적의 반격으로 참패했다. 송군이 영하 고원의 정전채에서 대패하는 등 서부 변경이 계속 위태로웠다. 한기와 범중염은 함께 감속성 경전에 주둔해 굳건히 지켰다. "군중에 한씨가 있는데 서하에서 그 이름을 들으면 뼈가 서늘해지고, 군중에 범씨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놀라 간담이 서늘해진다"는 말이 회자되었다.

범중염, 부필 등과 함께 경력신정(慶曆新政)에 참여했다. 1047년 7월 논비어침사주(論備御七事奏) 글을 올려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사를 논했다. 부정은 부패를 차단하고 국정을 쇄신하는 내외의 구폐팔사(敕弊八事)도 건의하였

우사간으로 재직시 인종에게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위정자들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용되지 못했다. 또 다시 상소를 올려 "두연, 범중염, 송고 같은 인물들은 사람들이 모두 바르고 충직하다고 합니다. 이들을 중용해야 합니다." 상주문이 계속 수용되지 않자 지방관으로 전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인종이 상소문을 중서령에 내려 보내 논의토록 하명하였다.

소인(小人)도 이해하려 하였으며 선악과 흑백을 갈로 자르듯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인들도 그를 배척하지 않았다. 반면에 부필, 범중염, 구양수 등은 군자와 소인을 구분했기 때문에 봉당의 표적이 되었다. 이로 인해 범중염 등이 쫓겨났을 때 그만이 홀로 안전할 수 있었다. 범중염 일파가 후일 다시 복권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한기 덕분이었다. 누군가가 사마광과 여공저의 인물평을 요청하자 "제주가 편벽되고 그릇도 작다"고 답했다.

구양수와 증공량은 성격이 상극으로 매번 정무를 논의할 때마다 격렬히 싸웠다. 그럴때마다 한기는 말하지 않고 기세가 누그러지기를 기다려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니 둘다 그의 의견을 따랐다. 구양수는 그를 "사직을 지키는 신하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극찬하였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 6.8 강진 규모 6.8 강진이 발생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다바오 주 파다다 지역에서 15일 주민들이 무너진 벽에 깔린 꽃 판매 상인들을 구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달라진 한일 수출규제 대화... 7월과 달리 日 공손한 태도

짧은 인사말과 함께 악수

경직된 분위기는 여전

15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국장급 한일 정책대화는 7월 과장급 실무회의와 비교해 우호적 분위기로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 경산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시작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는 한국 측에선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등 8명, 일본 측에선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

부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지난 7월 초부터 불거진 한일 수출규제 갈등 해법 모색을 위해 3년 만에 재개됐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직후인 같은 달 12일 열린 한일 통상당국 간 과장급 실무회의는 참고처럼 보이는 작은 회의실에서 열렸고, 회의 시작 전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았다.

이번 국장급 정책대화는 경산성 장관 주

재 회의 때도 사용되는 정상적인 회의실에서 열렸고, 일본 측은 7월 실무회의 때와 달리 생수와 커피 등도 준비해놓았다. 일측 대표단은 회의 시작 6분 전에 입장해 서서 한측 대표단을 기다렸고, 수석대표인 이다 부장은 잠시 회의실 밖에 서 있다가 한측 대표단 입장 직전 회의실로 돌아와 한국 측을 맞았다. 한일 수석대표는 회의장 입구에서 가볍게 웃으며 악수했다. "굿모닝"이라고 짧은 인사도 주고받았다. 일측 대표단은 한측이 회의장에 착석한 이후 자리에 앉는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에베레스트 오르려면 '질병 이력' 제출해야 네팔 무분별 등정 제한

세계 최고봉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를 오르려는 등반가는 앞으로 네팔 정부에 자세한 병력 서류를 내고 보험도 들어야 한다.

16일 카트만두포스트에 따르면 네팔 관광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등반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병력 서류, 건강진단서 등을 검토해 에베레스트 등반을 허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16세 미만 또는 심각한 질환을 앓았거나 범죄 이력이 있는 이만 에베레스트 등반이 금지됐다. 미라 아차리아 관광청장은 "등반가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체력과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올러 등반가들은 수색, 구조, 치료, 시신 수습 등과 관련한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해발 8000m 이상 지점의 시신을 수습하려면 20만달러(약 2억 3000만원)가량이드는상황이라고 카트만두포스트는 설명했다.

이번 초안은 관광부 장관 승인과 내각의 의결을 거치면 효력을 얻게 된다. 네팔 정부가 이런 규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등반 초보자'들의 무분별한 에베레스트 등정 도전으로 인해 다른 등반가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라는 지적 때문이다. /연합뉴스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